박원순2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서울특별시장선거

1.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 업	학 력	경 력
2	새정치 민주연합	박원순	남	1956.3.26 (58세)	서울특별 시장	단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현)서울특별시장

2.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ΣĮ	H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686,007	△209,501	△477,330	해당없음	824	육군 이병 (독자)	장남 : 육군 이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3.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	세 · 재산세 · 종합부동				
구 분	납세액	체납	내역	후보자 전과기록	
T 世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84,956	1,071	_		
후보자	81,074	_	_		
배우자	3,867	1,071	_	해당없음	
직계존속		해당없음			
직계비속	15	_	_		

4.소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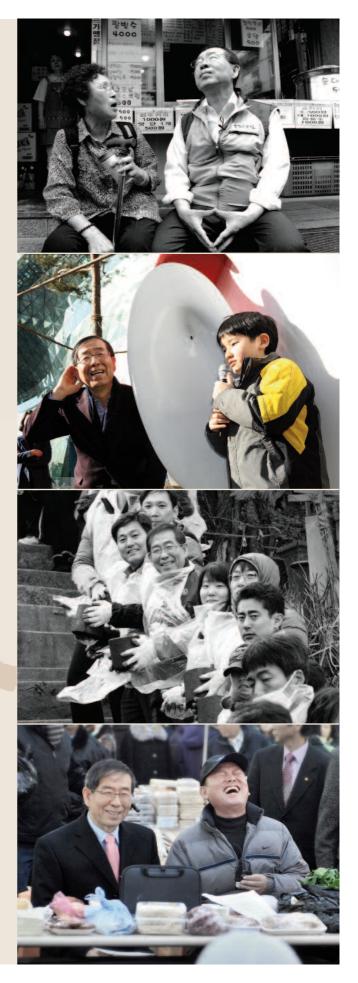
	없음	
	以口	

땀이 눈물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진실이 거짓에 가리워 지는 일이 있습니다. 과정이 결과에 무시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일을 당연시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루하루의 땀은, 하루하루의 진실은 결국, 하루하루의 힘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상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줍시다. 그런 시대를 만듭시다.

박원순이 당신 곁에서 당신의 하루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박원순의 서울 2년 6개월!

시민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 채무감축, 원순씨의 서울은 흑자!

2011년 10월 26일 원순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날, 서울시의 채무는 19조 9천억, 2014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 채무는 16조 7천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 해 말까지 공약대로 7조원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원순씨의 서울은 흑자였습니다.

시장이 보도블록 하나 가지고 난리야?

예전엔 연말만 되면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했습니다. 보도블록 문제를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본보기로 삼고 싶었습니다. 보도블록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았습니다. 작은 기본부터 지키는 서울의 행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의 현장에서 답을 찾다, 현장시장실!

은평뉴타운 내에 시장실을 만들었습니다. 9일만에 대형평수 위주의 미분양분 608가구 물량이 모두 판매되었습니다. 이후에 18개 지역에서 현장시장실이 운영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을 듣는 현장에서는 욕설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순씨는 그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마음을 다해 듣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을 끄는 시작이 될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약속대로 8만호 공급하다!

지난 선거에서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다양한 유형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2014년 상반기까지 앞당겨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으슥한' 골목을 '으쓱한' 골목으로 만들다!

역리동 뒷골목 으슥한 지역에 '소금길'을 조성했습니다. 담벼락에 밝은 그림도 그리고, 대문에 노란색을 칠한 노란대문 소금지킴이집을 두어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5개월 후에 조사해 보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13.6% 줄었고, 동네에 대한 애착은 13.8% 증기했습니다.

메<u>트로 9호선,</u> 3조 2천억원 혈세낭비 막다!

메트로9호선주이 적자가 날 경우, 시민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했습니다. 향후 30년간 3조 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이 낭비될 처지였습니다. 원순씨는 불합리한 협약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시민들이 주주가 되는 시민편드 형식을

도입하여 시민들에 의한 시민의 지하철로 만들었습니다.

한다면 하는 원순씨, 반<mark>값등록</mark>금 실현!

2011년 서울시장이 된 원순씨는 바로 다음 해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시행은 전국 186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 인하를 주도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원순씨, 한다면 하는 시람입니다.

올빼미 버스, 24시간 대중교통 시대를 열다!

지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되는 서울시 심아버스의 별명, 올빼미 버스는 시민 한 사람의 건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수 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올빼미 버스는 시장과 시민의 소통이 만들어 낸 최고의 행정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의 변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안전한 도시 서울

안전특별시 서울!

- 안전예산을 2조원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 지하철 노후차량 노후시설을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도시 서울!

- 어린이 안전버스!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 ZERO를 만들겠습니다.

집 걱정 없는 서울!

-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따뜻한 도시 서울

찾아가는 복제!

- 복지플래너를 도입. 현장사회복지인력을 2배로 확충하겠습니다.
- 동주민센터를 민관협력형 복지허브로 재편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베이비부메!

- 50+ 창업멘토단 등 보람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50대 인생재설계를 위한 50+캠퍼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성들의 '내 일'!

- 별처럼 쏟아지는 여성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 여성공예 창업 등 취미가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원순씨는 일 안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의 업적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전시행정은 단 한 건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삶 여기저기에서 희망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본격적인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꿈꾸는 도시 서울

창조경제의 메카!

- 5대 창조경제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 G밸리, 개포, DMC, 동대문 일대, 신·홍·합밸리(신촌, 홍대, 합정)
- 3대 이시이지식기반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 마곡, 창동 – 상계, 홍릉 일대

함께 잘 사는 경제!

- 지역거점 사회적경제클러스터 1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 골목경제협동조합과 생활서비스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내 삶 곁의 문화!

○ 문화향유를 위한 5대 문화 공연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시네마테크, 콘서트홀, 대중음악공연장, 국악예술당, 공예박물관

숨쉬는 도시 서울

미세먼지여 안녕~

- 초미세먼지를 4년간 20%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 동북아 주요도시와 대기질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천개의 숲, 만개의 산책길!

والأبالة المروي فالتفريض

- 생활권 주변 10분거리 공원과 생애주기별 힐링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 서울둘레길, 근교산지락길 등 '걷고 싶은 서울길'을 완성하겠습니다.

햇빛도시 서울!

- 전기요금 만원을 아껴주는 햇빛발전소 4만호를 보급하겠습니다.
- 서울형 햇빛발전지원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1956

'더 나은 세상'이 꿈의 전부인 사람, 박원순

박원순은 경남 창녕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5년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입학했습니다.



1994

참여연대를 만들고, 사법개혁운동, 소액주주운동, 부적절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반대 및 낙선운동 등 한국시민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0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활성회를 위해 1% 나눔,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고, 2003년에는 나눔과 순환을 모토로 하는 '아름다운 가게'를 열어, 나눔문회를 확산시켰습니다.



1975

박정희 정권의 유신철폐를 외치며 자결한 서울대 김상진 열사의 추도식에 참여했다가 투옥되고. 서울대에서 1975년 5월. 제명되었습니다.



1980₄

강원도 정선에서 등기소장으로 일하던 중. 시법고시에 합격, 검사가 됩니다. 1984년 시법연수원에서 만난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인권변호사로서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영국으로 유학, 이듬 해, 하버드 법대의 객원연구원으로 지내며. 선진 제도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2011 [[]



10월. 그는 '서울시장. 박원순!'이란 이름으로 다시,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06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정으로 '희망제작소'를 설립, 일상의 작은 불편해소에서 효율적인 국토개발 기획까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2014



6월. 서울의 변화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하루하루의 땀이 정당하게 보상 받는 그런 서울로의 변화 – 본격적인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서울의 100년 도시계획과 기반을 묵묵히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냐구요? 세상의 좋은 변화, 또 행복한 서울시민, 그리고 미래의 서울을 위해서죠! 그러라구 시장 시킨 것 아닙니까!"



소통이 돈이고 밥이고 일자리입니다



"이번 선거 때부터 과거의 나쁜 관행을 바꾸겠습니다. 유세차 없애겠습니다. 요란한 세과시 선거운동 안하겠습니다. 과도한 선거비용 확줄이겠습니다. (중략) 이것이 우리가 열망하는 새정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이 시기에 지하철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중략)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내 사전에 기권이란 없다!

5월 30~31일, 사전투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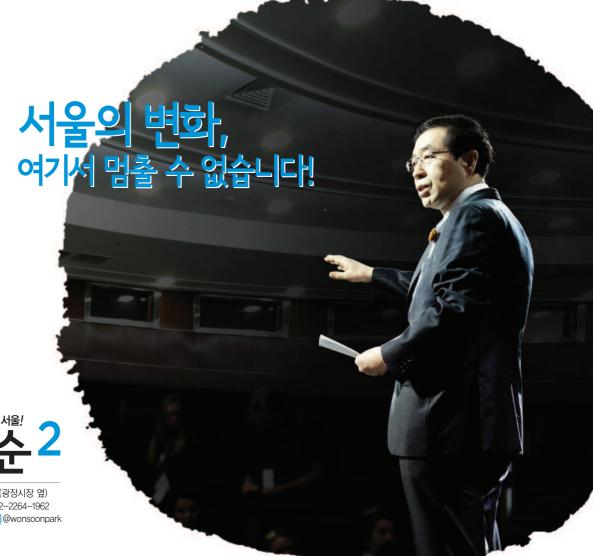
신분증만 있으면 유권자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 면, 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가 바로 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당신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서울이 있습니다. 당신이 서울로 돌아 오는 날,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서울을 만나실 수 있도록 박원순이 땀 흘리겠습니다.



오로지 시민! 오로지 서울!

서울시 종로구 종로 212 (광장시장 옆) T. 02-2272-6398 F.02-2264-1962 www.wonsoon.com @wonsoonpark